

진안군, 2개월 연속 인구 증가세 뚜렷

지난해 12월 대비 122명 증가… 인구늘리기 시책 등 다양한 인구정책 효과 나타나

진안군(군수 전춘성)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진안愛 주소갖기 운동' 등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이 시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따르면 올해 2월 92명, 3월 52명 등 2개월 연속 인구 증가세가 뚜렷이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22년 12월말 대비 122명이 증가한 수치다.

여전히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자연감소가 이어지고 있으나 11개 읍·면 중 10개 지역에서 고루 전입인구가 늘면서 인구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 내 14개 시군 중에서 2월 대비 인구 증가를 보인 곳은 진안군을 비롯해 김제시, 완주군, 순창군, 부안군 등 5개 자치체이며, 진안군은 완주군(0.7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인구증가율(0.24%)을 보이고 있다.

이에 진안군은 인구 증가 원인으로 출산, 육아지원, 귀농귀촌 지원, 청년

지원, 주거복지 지원 등 고른 분야에서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꼽고 있다.

군은 지난해 11월 11개 관내 기관·단체와 생활인구 진안愛 주소갖기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공동 대응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시책 추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전입장려금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국적취득 지원사업, 학생수 늘리기 지원사업 등 신규시책 추진을 통해 전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을 위해 숙박 단지인 진안고원 미스테이 조성, 촌스런 마을여행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활인구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

다.

특히 행정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다. 4월부터는 인구감소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인구 진안愛 주소갖기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진안군 애항분부에서 옵면 순회 설명을 통해 군민 모두가 인구늘리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범군민 인구늘리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민간에서도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나서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인구의 자연감소세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한 인구증가가 어려울 수 있지만, 앞으로도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진안민의 특색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간다면 전입 인구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은 10일 군민회관에서 2023년 첫 청원조회 및 1분기 혁신군정상 시상을 진행했다.

"장수 미래 준비해야 할 때"

최훈식 군수, 청원조회서 밝혀… 혁신군정상 시상도 진행

장수군은 10일 군민회관에서 2023년 첫 청원조회 및 1분기 혁신군정상 시상을 진행했다.

청원조회에서 최훈식 군수는 민선8기 시작 후 9개월 간 주요현안 및 공약사업 추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배부, 산불 예상 활동 등 다양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이날 청원조회에서는 국민 체감도가 높고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해 성과를 낸 팀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2023년 1분기 혁신군정상 시상도 함께 이뤄졌다.

혁신군정상은 민원과 종합민원팀, 농산유통과 유통정책팀, 보건사업과 치매정신통합팀 총 3개 팀이 수상했다.

민원과 종합민원팀은 일하는 방식 개선 및 부서 간 협업으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등급·정보공개업무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성과를 인정받았고, 농산유통과 유통정책팀은

2023년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해 안정적인 농가 경영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보건사업과 치매정신통합팀은 농업 안전보관함을 통해 자살예방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혁신군정상을 수상했다.

최훈식 군수는 "민선8기 9개월 간 공직자들이 위민행정을 실현해 준 것을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군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실현해 준다면 장수군의 미래가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수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스마트팜으로 미래농업을 준비하는 것과 장수군 대표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장수군 발전을 위해 지금처럼 공직자들이 먼저 나서서 혁신행정, 적극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용답면 황산마을 수몰민 전국모임 행사 개최

용답댐 조성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진안군 용답면 황산마을 수몰민들이 제1회 전국모임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8일 용답면 체련공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용답면민과 실향민 총200여명과 전춘성 군수, 육완문 행정복지국장, 최형진 미래하이 тек 대표 및 실향민 모임 최평국 회장이 참석했다.

황산마을은 2001년 용답댐 완공으로 수몰된 마을로 월계리 동남쪽에 있는 50여호 이상 되는 마을이었다. 마을 동쪽 밭에 있는 온통 붉은색을 뿐내는 고운 황토를 보고 '황산(黃山)'이라는 마을 이름이 황토에서 유래됐다는 주민들의 옛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참가자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용답댐 건설로 물에 잠기기 전 옛 황산마을 전경 사진으로 추억을 되살리며, 주민들이 장만한 음식을 나누며 고향의 향수를 달랠는 의미 있는 행사를 가졌다. 또한 수몰민 모임에서 어려운 가정을 위하여 써달라고 모금액 200만원의 성금을 용답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하기도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농기센터, 벼 무인공동방제 사업 착수

무주군은 단지별 공동방제를 통한 병해충의 효율적 방제에 나선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부서에서 벼 무인공동방제 사업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무인드론을 활용해 대규모 면적을 단기간 공동방제 함으로써 벼 병해충 사전 방제 효과를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해 방제 노동력과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무주군과 관내 농협이 협업해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무주군에 실거주 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를 실경작하는 벼 재배농가다. 무인드론을 활용해 벼 생육기간 중 2회에 대한 위탁 항공방제비 및 방제약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단, △경영체 미등록 필지 △벼 이외의 작물 신청 △무인 공동방제로 인근 농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제외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학력지원센터 이용 희망자 오리엔테이션 개최

시험 기간 앞두고 주말 오전 9시~오후 11시까지 개방

무주교육지원청은 학생을 모든 교육활동의 중심에 두는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위해 최근 무주학력지원센터에서 주말 공부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오리엔테이션은 무주학력지원센터 주말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김승기 무주교육장의 환영 인사와 담당 장학사의 이용 수칙과 주의사항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김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무주는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편안하고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

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시험 기간을 앞두고 주말에는 무주학력지원센터를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개방하고, 평일에는 무주도서관 열람실 개방 시간을 밤 11시까지 연장해 관내 학생들



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안호영 국회의원, 장수군 발전 위한 예산·정책 간담회 개최

장수군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장수, 완주, 진안, 무주) 의원은 10일 장수군 청 회의실에서 지역현안 및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한 예산·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훈식 장수군수와 박용근 도의원, 장정복, 장수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 지역 협의회장, 이종훈 부군수와 간부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24년 국가예산 확보 및 군정 주요현안 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예산·정책간담회에서는 민선8



기 군정 추진방향 공유와 더불어 2024년 국가예산 주요 확보대상 사업인 △동서화합 육성형 가야마을 조성사업 △장계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사업 △유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10건에 대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안호영 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또한 주요 현안사업으로 △국도 13호선 및 국도 26호선 도로시설 개량사업의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기본계획 반영 △한국미사회 장수군 유치전의 △금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운영 개선에 대한 당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주민 밤길 안전 확보 위해 가로등 설치

무주군 지역 내 취약지역의 밤길이 밝아졌다. 무주군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취약지역(진입도로, 우범지역, 야생동물 상습출몰 등)에 거주하는 주민의 밤길 안전 확보를 위해 신규 가로등 설치공사를 미루겠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사업비 1억1천여만 원을 들여 무주읍 가옥리 주동마을, 설천면 대불리 불대마을, 부남면 장안리 교동마을 등을 모두 79등을 설치함으로써 어둡던 마을길이 환하게 밝아졌다.

앞서 군은 밤길 안전 확보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커져감에 따라 지난해 가로등 취약지역 대상지들을 현장점검을 펼치면서 주민친화형 가로등 설치 치에 주력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마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 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